

성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 이 선 재

目 次

I. 서론	3.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II. 이론적 배경	4.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1. 성역할 태도와 의복	5.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나 음양특성 선호
2.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과 복식행동	6.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III. 연구방법	V. 결 론
1. 연구문제	참고문헌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BSTRACT
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IV. 결과분석	
1.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성역할 태도	
2.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I. 서론

인간은 복잡한 특성, 성향, 기호를 나타내고 생활환경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개성을 창출하며 언어나 비언어적인 행동에 의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한다. 특히 의복은 개인의 성별, 연령, 인종 및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그 시대의 특정한 문화권에서의 생활상을 반영해 준다.

형태, 크기, 색상, 기능의 상징을 갖는 의복은 각 개인의 개성이나 신체적 특성,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복의 본능적인 기능과 사회심리학

적인 기능외에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로 남녀의 지위가 평등화 되어가고 있고, 활동영역도 동질화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성역할에 대한 태도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의복착용이나 의복에 대한 태도면에서 성차가 희박해지고 양성화 경향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Duvall¹⁾은 현대 젊은 세대의 의복, 몸치장,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니섹스 경향은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고 성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방식으로부터 점차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주는 음양특성

도 성역할 태도에 따라 강조되거나, 약화되고, 혼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속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복식행동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며, 앞으로의 패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도 성역할 태도에 따른 복식행동에 관한 연구, 또는 유니섹스 의복이나 의복의 음양특성과의 관련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성인여성 전반에 걸친 세대간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sex-role attitude)를 비교 분석하고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yin-yang)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태도와 의복

성역할이란 특별히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한 행동기대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에 적합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태도와 행동 및 그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회적 역할보다도 개인의 외형행동, 정서적 인지기능, 내적태도 및 일반적인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통제한다.²⁾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든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의무와 기대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부여는 성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발생시켰다. 문화인류학자인 Mead의 New Guinea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생리적인 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였다.³⁾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대체로 공격적, 지

배적, 독립적, 활동적 등의 특성을 남성성(masculinity)의 특성으로, 의존적, 감정적, 수동적 등의 특성을 여성성(femininity)의 특성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배타적이고 상반된 것으로서 일차원적 연속체상의 양극에 놓여있다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여성해방운동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와 가치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식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따라서 종전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행동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기발전과 자기완성을 지연시키는 매우 인위적이고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 보게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남녀 모두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의 등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찌기 정신분석학자 Jung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적 존재라고 주장하였고,⁴⁾ Ben은 대학생 피험자의 35%가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이 둘 다 강한 사람을 양성성이라 칭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적응력이 우수하며 바람직하다고 하였다.⁵⁾ 즉, 양성성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⁶⁾

이와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됨에 따라 양성간의 의복차이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 1차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이에 따른 여성복의 남성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바지착용이 일반화 되었으며, 1960년대말 2차 여성해방운동인 페미니즘의 본격화와 더불어 전통적 여성다움의 관념을 벗어나고자 여성다움의 고정관념을 가시화한 전통적 의복의 절대 거부를 목표로 하여 남녀양성이 공동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인 유니섹스 의복이 나타났다. 1970년대 말에는 뉴웨이브의 영향으로 클래식한 매니쉬룩이 유행하였고, 1984년 말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자유롭게 융합시킨 새로운 감각의 양성적 룩(Androgynous look)이 나타나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

성역할 태도와 의복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유니섹스 의복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 근대적인 여성일수록 유니섹스 의복을 선호하고 데님의복의 착용빈도도 높았으며,^{7)~12)}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이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의복의 안락감을 중시하며, 의복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¹³⁾ 또한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 한다.^{14)~15)}

성역할 태도나 내향적-외향적, 남성성-여성성의 성격과 의복색채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 외향적, 활동적인 사람은 밝은색과 난색계열을 선호하였고, 이론적, 내성적, 사색적인 사람은 어두운색과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16)~17)} 그러나, Compton은 사교성이 높고, 외향적, 개방적인 사람이 분명하고 짙은 색상이나 어두운색을 선호한다고 하였고,¹⁸⁾ 이인자의 연구에서는 남성적인 경우 탁하고 어두운색을 좋아하였다.¹⁹⁾ 김광경, 이주현, 조승호 등의 연구에서는 슈트색에 있어 감색이나 파란색은 남성적으로, 주황이나 분홍, 빨강색은 여성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20)~22)}

성격이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는 남성성이 높으면 직선디자인, 캐주얼한 스타일과 거친옷감, 남성적 디자인 등 양의 의복특성을

선호하였고, 여성성이 높으면 부드러운 옷감과 꽃무늬, 작은문양, 여성적 디자인 등 의복에 나타난 음의 특성을 선호하였다.^{23)~28)}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의 여대생들은 남성성 유형과 여성성 유형의 중간적인 의복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성역할 태도는 의복디자인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2. 음양의 의복디자인과 복식행동

음양설(陰陽說)이란 고대 중국 최초의 자연철학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음양은 우주간의 두가지 상반 상생하는 기본 원소 또는 동력으로서 우주간의 각종 현상의 변화 법칙 또는 그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양이란 원래 '햇볕'을, 음이란 '그늘'을 뜻하였다. 그러나 후에 점점 발전되어 음양은 우주의 두원리 또는 원동력으로 풀이되어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 견고성 등을 나타내고, 음은 여성적인 것, 수동적, 추위, 어두움, 습기, 유연성 등을 뜻하게 되었다. 또한 양은 만물을 생산하는 원리요, 음은 만물을 완성시키는 원리이며, 이 큰 원동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이 발생하였다는 논리이다.²⁹⁾ 태극은 음양으로 조합된 우주원리이며 근본이고 이 태극의 중앙분리선이 곡선인 것은 양과 음은 직선으로 양분되지 않으며, 음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는 것으로 양극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음양의 특성은 성격 및 신체적 특성과의 연관되어 있다. 음은 수동적이며, 소심하고, 세심한 성격요소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음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순종적이며 온순하며 허약하다. 양은 활동적이며 맹렬한 성격요소로 묘사된다. 양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힘있고 적극적이며 강하다.³⁰⁾

의복에서 음양(Yin-Yang)의 개념은 Northrup³¹⁾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Northrup은 태극무늬가 상징하는 음과 양을 기본으로 하여 태양이 주는 힘, 위엄, 견고함, 남성적인 성격을 양의 특성,

달빛이 주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온화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음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외모와 행동, 사고방식등으로 개인을 분류하여 개인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여 한 개인의 인적특성 뿐 아니라 복식행동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음양의 이론을 제시하였다.³²⁾

의복디자인의 음의 특성은 밝고 부드러운 색채, 열은색채, 동색대비, 곡선과 작고 섬세한 디자인과 문양, 부드럽고 얇은 직물, 작은 디테일이나 액세서리이며, 양의 특성은 대담하고 대비가 강한 색채, 짙은색채이며, 직선, 장식없는 면이나 강한 디자인이 사용되고, 직물에는 강한 모티브가 표현되며 무겁고 거친 직물이 사용된다.¹⁹⁾²⁰⁾³³⁾³⁴⁾ 이와 같이 의복디자인의 음양특성은 색채, 직물, 악세서리, 의복의 형태, 선과 재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성역할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2)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3)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4)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5)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①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②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③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20대~40대 성인 여성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에 걸쳐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371부 중 불완전한 것과 무성의하게 대답한 것을 제외한 31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

변 인		빈 도	백 분 율
결혼여부	미 혼	149	47.0
	기 혼	168	53.0
연 령	20 대	147	46.4
	30 대	78	24.6
	40 대	92	29.0
교육정도	고 졸	93	29.3
	대학재학	132	41.0
	대 졸	92	29.0
직 업	여 대 생	121	38.2
	전업주부	119	37.5
	직업여성	77	24.3

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성역할 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결혼여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 등 4항목을 조사하였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BSRI(Bem Sex Role Inventory)³⁵⁾와 김영희가

연구한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³⁶⁾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거쳐 중성성 문항을 제외한 남성성 15 문항, 여성성 15문항 총 3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type 5점척도로 점수화하여 중앙치 분리법에 의해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兩性性), 미분화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모두 낮으면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의복색채에 나타나 음양특성 선호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를 조사하는데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R.S.Woodworth에 의해 개발된 소비자 선호도 측정법 중에서 이미경³⁷⁾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색채에 관한 20문항을 채택, 수정하였다. 이것은 외출시나 평상시, 레저시 가장 선호하는 색채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과 선행연구,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의복색채의 명도, 채도, 한난, 대비에 대한 선호를 음양특성으로 나누고 Likert-type의 5점척도에 의해 점수화 하였다.

① 명도는 저명도와 고명도의 비교법으로 5문항을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아 저명도를 선호한다.

② 채도는 고채도와 저채도의 비교법으로 5문항을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아 고채도를 선호한다.

③ 한난은 한색과 난색의 비교법으로 5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아 한색계열을 선호한다.

④ 대비는 보색대비와 동색대비의 비교법으로 5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아 보색대비를 선호한다.

4)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의복색채를 제외한 의복디자인 요소인 선, 형, 재질과 문양, 악세서리 등에 대한 음양특성 선호를 의복디자인 선호라 하였다.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사용된 측정도구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양의 특성 9문항과 음의 특성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type의 5점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디자인에 대해 양의 특성이 높은 것이다.

5)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지금까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 조사는 음양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자는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를 Northrup등에 의해 발전되어 온 음양이론과 Bem 등의 연구 이후로 발전되어 온 성역할 태도의 4가지 유형 연구를 종합하여 남성적 태도, 여성적 태도, 양성적 태도, 미분화 태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는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도를 조사한 18문항을 가지고 양의 특성, 음의 특성 각각을 점수화하여 중앙치 분리법에 의해 남성적 태도, 여성적 태도, 양성적 태도, 미분화된 태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양의 특성과 음의 특성이 모두 높으면 양성적 태도, 모두 낮으면 미분화된 태도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산출 및 t-검증, F-검증, Scheffe 사후검증, Duncan 사후검증, χ^2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성역할 태도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성역할 태도는 결혼여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에서는 양성성과 남성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혼에서는 남성성과 미분화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성을 가진 사람은 기혼이 더 많았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변인 N, %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성	계
결혼여부	미혼	53 35.6	20 13.4	66 44.3	10 6.7	149 100
	기혼	58 34.5	32 19.0	34 20.2	44 26.2	168 100
$\chi^2=33.62^{***}$ DF=3 p<.001						
연령	20대	50 34.0	20 13.6	67 45.6	10 6.8	147 100
	30대	29 37.2	14 17.9	22 28.2	13 16.7	78 100
	40대	32 34.8	18 19.6	11 12.0	31 33.7	92 100
$\chi^2=46.20^{***}$ DF=6 p<.001						
교육정도	고졸	32 34.4	14 15.1	19 20.4	28 30.1	93 100
	대학재학	51 38.6	15 11.4	57 43.2	9 6.8	132 100
	대졸	28 30.4	23 25.0	24 26.1	17 18.5	92 100
$\chi^2=38.21^{***}$ DF=6 p<.001						
직업	여대생	43 35.5	16 13.2	53 43.8	9 7.4	121 100
	전업주부	40 33.6	24 20.2	20 16.8	35 29.4	119 100
	직업여성	28 36.4	12 15.6	27 35.1	10 13.0	77 100
$\chi^2=34.16^{***}$ DF=6 p<.001						
계		111 35.0	52 16.4	100 31.5	54 17.0	317 100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양성성과 남성성이 높았고, 40대는 남성성과 미분화가 높았다. 여성성과 미분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양성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점차 양성화 되어가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교육정도별로는 대학재학중인 그룹이 남성성과 양성성이 높았고, 고졸이하는 남성성과 미분화가 높았다. 대졸이상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여대생은 양성성과 남성성이, 전업주부는 남성성과 미분화가, 직업여성은 남성성과 양성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성은 직업여성이 가장 높았고, 여성성과 미분화는 전업주부가, 양성성은 여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양성적,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 특성 선호는 명도, 한난, 대비에서 결혼여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여부별로는 명도와 한난에서 유의차를 보여 미혼이 기혼에 비해 양의 특성이 높았다. 연령별에서도 명도와 한난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명도, 한난에서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고 미혼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의복색채 선택시 저명도, 한색계열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로는 명도, 한난, 대비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명도와 한난은 대학재학, 대졸이상, 고졸이하 순으로 양의 특성이 높아 저명도,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 대비는 비교적 음의 특성이 높아 대졸, 대학재학, 고졸 순으로 동색대비를 선호하였다. 직업별로는 명도, 한난, 대비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명도는 여대생, 전업주부, 직업여성 순으로 양의 특성이 높아 저명도를 선호하였고, 한난은 여대생, 전업주부, 직업여성 순으로 양의 특성이 높아 한색계열을 선호했으며, 대비는 전업주부, 여대생, 직업여성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비교적 음의 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미혼이며, 연령이 낮고 학생일수록 색채 중 명도와 한난에 대한 양의 특성이 높아 저명도와 한색계열을 선호하였고, 대비에서는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비교적 음의 특성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 동색대비를 더 선호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N=317

의복색채 변인 M(SD)		명 도	채 도	한 나	대 비
결혼 여부	미 혼	16.49(3.14)	15.93(3.30)	16.32(3.55)	11.84(2.46)
	기 혼	15.12(2.95)	15.81(2.95)	15.40(3.43)	12.22(2.70)
	t값	3.99***	0.33	2.33**	-1.32
연 령	20대	16.45(3.06)A	16.03(3.35)	16.46(3.54)A	11.87(2.50)
	30대	15.21(2.92)B	15.97(2.83)	15.49(3.55)	11.99(2.88)
	40대	15.14(3.17)B	15.50(2.94)	15.11(3.34)B	12.36(2.48)
	F값	6.90**	0.90	4.81**	1.02
교 육 정 도	고 졸	15.15(3.13)B	15.49(2.80)	15.27(3.10)B	12.60(2.68)A
	대 재	16.53(3.00)A	16.09(3.19)	16.45(3.44)A	12.07(2.35)
	대 졸	15.28(3.05)B	15.91(3.28)	15.50(3.89)	11.43(2.73)B
	F값	7.17***	1.02	3.74*	4.81**
직 업	여 대 생	16.58(3.01)A	16.02(3.27)	16.46(3.48)	12.01(2.41)
	전업주부	15.29(3.05)B	15.66(3.95)	15.49(3.59)	12.44(2.85)A
	직업여성	15.21(3.13)B	15.92(3.12)	15.36(3.33)	11.48(2.37)B
	F값	6.98**	0.42	3.25*	3.24*
	계	15.76	15.86	15.83	12.04

*p<.05 **p<.01 ***p<.001
AB는 scheffe검증 결과

3.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 특성 선호는 결혼여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이 기혼보다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교육정도별로는 대학재학, 대졸이상, 고졸 이하의 순으로, 직업별로는 여대생, 직업여성, 전업주부의 순으로 양의 특성이 높았다. 따라서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학생일수록 양의 특성 즉, 남성적인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직선적 스

타일, 두껍고 거친 직물, 크고 대담한 악세서리, 단순한 문양 등을 더 선호하였다.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 특성 선호

변 인		의복디자인 M(SD)
결혼여부	미 혼	57.78(7.09)
	기 혼	54.35(6.88)
	t값	4.35***
연 령	20대	57.80(7.26)A
	30대	54.88(6.87)B
	40대	53.93(6.61)B
	F값	9.91***

교육정도	고졸	53.66(6.09)B
	대개	57.92(7.06)A
	대졸	55.55(7.66)
	F값	10.29***
직업	여대생	57.76(7.04)A
	전업주부	54.83(6.72)B
	직업여성	54.88(7.53)B
	F값	6.35**
	계	55.96

*p<.05 **p<.01 ***p<.001
 AB는 scheffee검증 결과

4.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를 연구한 결과 결혼여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5).

결혼여부별로는 기혼보다 미혼이 남성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미혼은 남성적 태도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기혼은 여성적 태도인 사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남성적 태도, 여성적 태도 순, 30대는 여성적 태도, 남성적 태도 순, 40대는 여성적 태도, 미분화된 태도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하는 여성적 태도와 미분화 태도인 사람이 많았고, 대학재학중은 남성적 태도가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은 여성적 태도와 남성적 태도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여대생은 남성적 태도, 여성적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는 여성적 태도, 미분화 태도인 사람이 많았으며, 직업여성은 여성적 태도, 남성적 태도의 순으로 나타나 여대생은 비교적 남성적인 특성이 강하고, 전업주부나 직업여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사회적인 관념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기 위해 여성적인 의복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학생일수록 남성적 태도인 사람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양성적 태도보다는 여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성역할 태도 변인 N, %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성	계	
	결혼여부					
미혼	67 45.0	38 25.5	27 18.1	17 11.4	149 100	
기혼	38 22.6	70 41.7	24 14.3	36 21.4	168 100	
$\chi^2=23.42^{***}$ DF=3 p<.001						
연령	20대	66 44.9	38 25.9	27 18.4	16 10.9	147 100
	30대	20 25.6	30 38.5	14 17.9	14 17.9	78 100
	40대	19 20.7	40 43.5	10 10.9	23 25.0	92 100
$\chi^2=26.58^{***}$ DF=6 p<.001						
교육정도	고졸	17 18.3	41 44.1	8 8.6	27 29.0	93 100
	대학재학	58 43.9	34 25.8	24 18.2	16 12.1	132 100
	대졸	30 32.6	33 35.9	19 20.7	10 10.9	92 100
$\chi^2=33.13^{***}$ DF=6 p<.001						
직업	여대생	53 43.8	30 24.8	25 20.7	13 10.7	121 100
	전업주부	28 23.5	43 36.1	18 15.1	30 25.2	119 100
	직업여성	24 31.2	35 45.5	8 10.4	10 13.0	77 100
	$\chi^2=25.25^{***}$ DF=6 p<.001					
계	105 33.1	108 34.1	51 16.1	53 16.7	317 100	

5.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명도, 채도, 한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 따라 남성적 특성이 강할수록 저명도, 저채도, 한색계열, 동색대비를 선호하며, 여성적 특성이 강할수록 고명도, 고채도,

난색계열, 보색대비를 선호하였다. 양성적 태도는 명도, 채도에서 여성적 태도와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고, 한난에서는 남성적 태도와 여성적 태도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미분화 태도는 명도와 한난에서 여성적 태도와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냈고, 채도에서는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표 6>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음양에 따른 의복색채 선호

N=317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의복색채 M	남성적 태도	여성적 태도	양성적 태도	미분화 태도	F값
명 도	17.19A	14.88A	15.77B	14.76B	13.63***
채 도	15.01B	16.46A	16.20A	16.02AB	4.35***
한 난	16.88A	14.90B	15.82AB	15.66B	5.94***
대 비	11.93	12.10	11.94	12.25	0.21

***p<.001 AB는 Duncan검증 결과

6.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1)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성역할 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

호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채도와 대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7>. 남성성과 양성성은 채도에서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고채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여성성은 대비에서 음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동색대비를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7> 성역할 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N=317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의복색채 M	남성적	여성적	양성적	미분화	F값
명 도	15.69	15.54	15.89	15.89	0.19
채 도	16.16A	15.75AB	16.05AB	15.02B	1.83*
한 난	15.76	15.77	15.68	16.32	0.42
대 비	12.54A	11.48B	11.98AB	11.67AB	2.61*

*p<.01 AB는 Duncan검증 결과

(2)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성이 높을수록 여성성이 높은 사람보다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양성성과 미분화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

간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미분화는 양성성보다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양성성은 디자인의 음양 특성을 고르게 선호하는 반면 미분화는 디자인의 양의 특성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N=317

변 인	남성성	여성적	양성성	미분화	F값
의복디자인 M	57.90A	52.75C	55.34B	55.67AB	6.74***

(3)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 선호 태도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 선호 태도와는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성역할 태도는 남성성, 양성성인 사람이 많았으나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는 여성적 태도를 나타낸 사람이 많아 성역할 태도는 많이 남성화, 양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의복디자인 선호에 있어서는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도인 사람이 10%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성역할 태도에서 미분화인 사람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 미분화 태도는 33.3%, 남성적 태도는 29.6%, 여성적태도는 25.9%, 양성적 태도는 11.1%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를 알아 보고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성역할 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 의복디자인 선호 태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남성성, 양성성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양성성을 나타낸 사람이 여성성을 나타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는 학력이 높은 젊은 세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여성적 특성에서 양성적 또는 남성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색채 중 명도, 한난에 대한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저명도,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 대비에서는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비교적 음의 특성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 동색대비를 더 선호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직선적 디자인, 두껍고 거친 직물, 단순한 문양, 큰 악세

〈표 9〉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성역할 태도 N, %	남성성 태도	여성성 태도	양성성 태도	미분화 태도	계
남성성	49 44.1	28 25.2	13 11.7	21 18.9	111 100
여성성	9 17.3	28 53.8	11 21.2	4 7.7	52 100
양성성	31 31.0	38 38.0	21 21.0	10 10.0	100 100
미분화	16 29.6	14 25.9	6 11.1	18 33.3	54 100
$\chi^2=37.31^{***}$ DF=9 p<.001					
계	105 33.1	108 34.1	51 16.1	53 16.7	317 100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성인 사람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도 44.1%가 남성적 태도를 나타냈다. 성역할 태도에서 여성성인 사람은 53.8%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도 여성적 태도를 나타냈고, 21.6%는 양성적 태도를 나타냈다. 성역할 태도에서 양성성인 사람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 여성적 태도인 사람이 38%, 남성적 태도인 사람이 31%, 양성적 태도인 사람이 21%, 미분화 태

서리 등을 더 선호하였다.

네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남성적 태도인 사람이 많았으며 양성적 태도보다는 여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다섯째,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는 명도, 채도, 한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저명도, 저채도,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 양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명도, 채도에서 여성적 태도와 유사하였으며, 한난에서는 남성적 태도와 여성적 태도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미분화 태도를 보인 사람은 명도와 한난에서 여성적 태도와 유사하였고, 채도에서는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여섯째, 성역할 태도와 의복색채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는 채도와 한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채도에서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아 고채도를 선호하였다. 대비는 비교적 동색대비를 선호하였으나 여성성이 높을수록 음의 특성이 높아 더욱 동색대비를 선호하였다.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고, 미분화는 채도에서는 음의 특성이 가장 높았고, 대비는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일곱째,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 선호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양성성과 미분화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미분화인 사람이 양성성인 사람보다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역할 태도에 따라 유사한 의복디자인 선호태도를 나타냈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성, 양성성인 사람이 많았으나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는 여성적 태도를 나타낸 사람이 많아 성역할 태도는 많이 남성화, 양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의복디자인 선호에 있어서는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성인 사람과 여성성인 사람은 의복

디자인 선호태도에 있어서도 각각 남성적 태도와 여성적 태도를 보인 사람이 많았다. 성역할 태도가 양성성인 사람과 미분화인 사람은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는 비교적 모든 선호태도에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성역할 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문항의 개발과 다양한 의복디자인 선호태도 구분 방법,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더욱 세분화한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Duvall, E.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 J. B. Lippincott Comp., 1977, p.122.
- 2) Mussen, P.H., Early Sex-role Development, in D.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1969, pp.707~731.
- 3) Mead, M., Sex and Temperament in Their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 McGraw Hill, 1981.
- 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 영역별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200.
- 5)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Vol. 42, no. 2, 1974, pp.155~162.
- 6) 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87, p.29.
- 7) 정삼호, 진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8)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979, pp.1~11.
- 9) 원미숙, 강혜원,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1983, pp.37~44.
- 10) 최경희, 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1985, pp.1~8.
- 11) 이선재,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 서울시내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8, 1989, pp.171~193.
- 12) 문군식, 남녀 고등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3) 최윤경,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4)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심리학적 의복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979, pp.1~11.
- 15) 최희순,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와의 관계 :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6)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1976, pp.785~799
- 17) 나수임, 여고생의 착복색 선호와 성격 특성과의 상관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8) Compton, N.H.,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ournal of Psychology*, 54(1), 1962, pp.191~195
- 19) 이인자, 여대생의 의복디자인 선호와 흥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 1974
- 20) 김광경, 남성적,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 특성과 직업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21) 이주현, 강혜원, 조길수,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3), 1986, pp.63~70
- 22) 조근호, 청소년과 성역할 발달, 청년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제9집, 1986, pp.5~21
- 23) Forrester, A.T., Relation of Fabric Preferences to Body Build and Other Selected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67, p.58
- 24)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1987, pp.29~42
- 25) 이현미,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악 의복행동간의 관계 : 이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26) 박인미, 여고생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 및 사회계층과의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7) 김은애,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8) 유경숙,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9) 馮友蘭, 중국철학사(상), 서울 : 세움사, 1975, p.193.
- 30) Mary G. Wolfe, FASHION, The Goolheart-Willcox Company, Inc., 1989, p.228
- 31) Northrup, B., An approach to the problems of costume and Personality, *Art Education Today*, 2, 1936, p.94~104
- 32)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p.319.
- 33)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pp.320~323.
- 34)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1995, p.214~216
- 35)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

- 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No. 2, 1984, 155~62.
- 36) 김영희,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27), 1988, p. 153~180.
- 37) 이미경,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ABSTRACT

A Study on Sex-role Attitudes of Women and Yin-Yang characteristics in clothing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sex-role attitudes of women, and 2)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Yin-yang characteristics in clothing design.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17 women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ndrogynious gender and masculine gender with sex-role attitudes are strongly appeared among the low-age, university students and not-married group.

2) Yang characteristics with light and cool-warm color to the clothing color and with clothing design are strongly appeared among the low-age, university students and not-married group.

3) Masculine attitude with clothing design preference attitudes are strongly appeared among the low-ager, university students and not-married group. Many persons appeared to have feminine attitude rather than in androgynious attitude.

4)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yin-yang characteristics to the clothing design. A high level of masculine gender is strongly indicated the yang characteristic with saturation to the clothing color and with clothing design.

5)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 attitudes.